

# “표적수사 희생양” 주장... 자원외교 수사 차질 불가피

## 성완중 전 회장 사망으로 검찰 곤혹

### 사정 정국 급제동... 경남기업 수사 중단될 듯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성완중(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부패적격을 앞세워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성 전 회장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정치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정 드라이브에도 급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원외교 의혹 등 최근 시작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뜻과는 정반대로 성 전 회장의 사망이 정치 수사 논란을 고조시키면서 적폐해소를 명분으로 막을 올렸던 부패적결 수사는 초반부터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지청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회견문을 내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자신과 경남기업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속성을 거론하면서 “저는 MB맨(이명박 정부 사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회견문 전반에 부각시켰다.

세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정부 당

시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반해, 성 전 회장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대주주인 경남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 위기를 맞았다는 점,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성공불용자금 횡령 등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왜 제가 자원외교의 표적 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이 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자신을 ‘MB맨’으로 오인한 가운데 사실과는 동떨어진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 전 회장이 이런 심경을 털어놓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수사가 절차적 적법성을 지녔다고 해도 정치인이자 기업인인 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라면 지나쳤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부터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수사나 포스코그룹 비자금 수사도 모

두 전 정권 인사들과 닿아 있다. 사정당국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과 맞닥뜨린 형국이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지 않다는 사정당국의 해명에도 성 전 회장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검찰 수사에는 얼룩이 묻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을 둘러싼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유착 의혹 등 성 전 회장 관련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이라도 성 전 회장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흔들림 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외풍이 커지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사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가 숨지면서 관련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는 차이를 넘어 수사의 명분까지 희석되는 상황이 온다면 검찰의 의욕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치인형 기업인... MB때 해외자원 개발 참여

### ■ 성완중은 누구

9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 후 숨진 채 발견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자 지낸 ‘정치인형 기업인’으로 통한다.

성 전 회장은 1985년부터 10여년간 대아건설 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04~2012년에는 도급 순위 26위권(작년 기준)의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3년 충청권 정당인 자유민주연합 총재특별단장을 맡아 김종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고,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추천지원했다.

당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는 잠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는 나중에 ‘MB맨’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계기가 된다.

그는 2012년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날리려던 와중에 공직선거법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했다.

## 문재인 “새정치가 새경제”

### 국회 교섭단체 연설,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경제구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 경제의 골자에 대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의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박근혜정부 2년을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 ‘국민이 배신당한 2년’으로 규정,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

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시장·분배·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며 연말정산 사태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세금이 공정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요구하며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으로,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며 남북문제와 관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과 5·24 조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서 야당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전남지사 12일 中 저장성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는 12~15일 전남도와 자매결연한 중국 저장성(浙江省)을 방문해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한다. 이어 베이징에 들러 수출계약 체결과 주요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

저장성은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전남도와 교류협력을 시작했고,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05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 전남을 방문한 인연으로 두터운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9일 “이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FTA시대 개막에 따른 투자·통상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과의 지방외교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황주홍, 전남 하수관로 노후 도로합몰 위험

전남지역의 하수관로 16%가 사용연수가 20년 이상 돼 도로합몰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남의 전체 하수관로 8765km 가운데 사용연수가 20년을 넘긴 노후 하수관로가 1425km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16%에 달했다.

특히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도 259km(전체연장의 3%)나 됐다. 또 10년 미만 3545km, 10년 이상 20년 미만 3795km, 20년 이상 30년 미만 825km, 30년 이상 40년 미만 261km, 40년 이상 50년 미만 78km다.

지역별로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여수시(509km)가 가장 많았고, 목포시(313km)·순천시(245km)·강진군(126km)·광양시(120km)·나주시(62km)·영암군(39km)·함평군(8km) 순이었다.

황 의원은 “최근 지방침하와 도로합몰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는 도로합몰의 원인 85%가 하수관로의 노후·불량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위험이 우려되는 곳부터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윤재만 DJ센터 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

광주시 산하기관장 첫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윤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 내정자는 9일 “무역협회 등 조직경험과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미래이나마 광주 컨벤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장직에 응모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만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시장 파트너로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사의를 표명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윤 전임자의 자진사퇴에 따라 4월 중 신임 사장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윤 내정자가 사장 업무수행능력이 부적격하다’는 청문 결과를 보고한 뒤 광주시에 전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장혜숙 전 광주YWCA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월 협약을 하고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4곳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 4곳 등 8곳 기관에 대해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질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ray를 이용한 시술/최초정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저를 이용한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질,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